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‘22. 10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 목 : KLA는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미 정부의 10.7일 조치를 고객사들에 재차 알려온 것으로 파악. 미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는 입장. 기존 상황과 달라진 것 없음
(10.11일자 로이터 및 연합뉴스, 중앙 등 「“미 반도체 장비업체 KLA ‘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납품 중단’」 보도 등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‘22.10.11일 로이터 및 이를 인용한 「미 반도체 장비업체 KLA ‘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납품 중단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KLA는 중국 기반 고객사에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, KLA가 거래를 중단한 업체에는 인텔과 SK하이닉스가 소유한 중국 공장이 포함되었다”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관련업계 등에 확인한 결과, KLA 등 미국 장비업체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통보한 내용은 “앞으로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없이는 장비를 공급할 수 없다”는 지난 10.7일 미국 상무부의 발표내용을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고객사에 재차 알려준 것일 뿐, 기존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음
- 미 상무부는 중국내 한국기업 공장에 공급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(case-by-case review)를 통해 차질없이 장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허가절차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
-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은 장비공급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임

※ 문의 : 무역안보정책과 김영만 과장(044-203-4830) / 김정운 서기관 (4831)